

시 부문 심사평

응모된 많은 작품들을 읽으면서 5·18항쟁의 기억과 현재 인식 및 미래의 계승을 고민했다. 기억의 뿌리가 튼튼하지만 후자가 약한 작품들이 있었고, 현재 인식 및 미래의 계승 차원에서 주목되나 전자가 약한 작품들이 있었다. 어느 한쪽도 배제하거나 가중치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요한 세계-김경철을 기리며」 외 4편을 투고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함께 투고한 작품들 역시 역사의식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인식에 공감되고 미래의 계승도 충분히 기대될 만큼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 중에서 「별이 빛나는 밤」, 「요로코롬 살아도 되능가도 싶고잉」, 「갯벌의 시위」 등도 논의되었다. 「갯벌의 시위」는 갯벌과 계를 통한 시적 형상화가 신선했다. 다만 비유적인 면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작품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약한 점이 지적되었다. 「요로코롬 살아도 되능가도 싶고잉」은 토속적인 말맛이 살아 있고 해학적인 리듬의 전개가 돋보였으나 5·18항쟁의 소재를 녹여내는 데 다소 상투적인 표현들이 보여 아쉬웠다. 「별이 빛나는 밤」은 뛰어난 서정성이 돋보이고 작품의 완성도 또한 높은 수준이었지만, 투고한 다른 작품들의 수준이 고르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별이 빛나는 밤」과 마지막까지 논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작품 전체의 수준이 고르고 5·18문학상의 정신과 가장 닿아 있다고 판단되는 「고요한 세계- 김경철을 기리며」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 <맹문재, 김경주>